

동아시아 담론과 한국 한문학*

윤재환**

<차례>

1. 서론
2. 동아시아 문화와 유교·한자·한문(한문학)
3.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자리찾기
4. 결론

<국문초록>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특정한 몇 가지 문화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념과 이상, 상상과 허구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문화를 몇 가지 특정한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 공동 문화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관념과 이상에 근거하여 동아시아를 보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동아시아의 문화 요소 중 한문학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문학 양식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한문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아와 타자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한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인 접근은 이와 같은 담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한문학 연구자들은 한국 한문학이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학이며, 중국의 한문학과는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을,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의 한문학과는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을 지니는 문학이라고 보고, 다양한 접촉을 통한

* 이 글은 2023년 3월 25일 “동아시아에서 보는 한국, 한국에서 보는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개최된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3단계 제1회 국제학술 회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류와 소통의 내용을 밝혀 동아시아 안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동아시아에서 상호 교류와 소통의 주역이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 교류와 소통의 결과가 대체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동아시아와 한국 한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담론, 문화 담론, 문화정체성, 한문학, 동아시아 한문학, 한국 한문학

1. 서론

한국 한문학에 관한 논의 중 그 범주가 가장 확장적인 것은 한국 한문학을 동아시아 문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 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문학이라는 문학 양식이 지닌 전통과 한문학의 지역적·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근대 시기 한문학이 가졌던 위상을 되살려 현재 한국 한문학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한국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확산하면서 점점 더 큰 지지를 얻게 되었지만, 이 논의가 동아시아 담론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어서인지 이 논의 역시 동아시아 담론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아시아 담론이 시들해진 최근에 와서는 학계의 관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듯 보인다.

한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언급되는 동아시아 담론은 사용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동일한 공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담론이 지니는 내적 속성은 담론의 주

제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구와 변별되는 동아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1990년 무렵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담론은 이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어 고민과 비판의 내용에 따라 내적 속성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담론은 크게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의 네 계열로 구분되고, 네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하위 범주를 포함하게 된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아시아 한자문명권론, 유교문명권론, 동아시아 문학회 등을,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동아시아 탈근대주의론, 동아시아 탈민족주의론, 동아시아 탈국민국가론 등을,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을,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경제공동체론 등을 포함한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동아시아 담론의 내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담론은 서구를 전제한, 서구의 이항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그동안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라는 권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매개로 새로운 세계질서와 문화를 설명, 모색하려는 90년대 이후의 일군의 새로운 지적 흐름”²⁾, “서구에 대한 절대성 부여나 서구 및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의 실체를 객관화하고 재검토하는 행위”³⁾, “서구 근대에 의해 말소되고 부정

1) 윤여일,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2~123쪽.

2) 정중현,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30년대 '동양 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39쪽.

된 동아시아의 자기 긍정 나아가 자기 주장”⁴⁾, “탈대국주의, 탈국가주의, 탈제국·탈식민·탈냉전의식,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동아시아적 대안 찾기”⁵⁾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내적 속성에서 일정한 차이를 지니지만, 동아시아 담론은 서구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점에서만큼은 일치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담론은 사용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른 변별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담론은 더 근원적인 지점인 동아시아라는 용어에서부터 문제를 지닌다.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는 동아시아라는 용어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지리적 명칭이다. 지정학적으로 시베리아 극동지방과 한국·몽골·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부 및 북동부를 포함하지만, 흔히 우리는 이 중에서 시베리아 극동지방과 몽골을 배제하고 중국 전역을 포함하는 용어로 동아시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는 실재하는 지리적 지형이나 그 지형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대체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는 존재하는 지역 그 자체로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관념과 이상에 의해 규정된 용어이다.

이런 모습은 한문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한문학의 범주에 베트남 한문학을 포함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한문학은 동아시아 한문학이 될 수 없지만, 동아시아를 한자문화권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고 베트남에서 한자를 사용했기

3) 김광역,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70,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22~23쪽.

4) 최우영,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공동체주의」, 『오늘의 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82쪽

5) 고성빈, 「동아시아담론: 이론화를 향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21(4),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2, 111쪽.

때문에 베트남 한문학을 동아시아 한문학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라는 공간에 포함되는 국가와 지역이 실재하는 지정학적인 모습과 일치하기보다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념과 이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대신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시아 역시 지정학적으로 몽골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함하고 중국의 경우 동북 지방 이외의 지역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용어와 같은 문제를 지닌다.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가 지정학적인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관념적·이상적·이념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은 담론의 주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담론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구의 대립항으로서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문화에 주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이런 노력 역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 철학의 해석을 위해 서구에서 유입된 이론·이념·개념·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서구 중심적인 지식체계에 맞서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간 배제되었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구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990년대에 나타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동아시아 담론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학계의 중심에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둔 동아시아 담론만큼은 아직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그

노력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동아시아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 또는 서구 추종적인 근대화와 문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문화 본질주의·근본주의를 추구 혹은 비판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논의를 펼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관해 언급된 그간의 논의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논의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논의가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담론이 논의의 장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가능성과 의미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근대 시기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상황에 의해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 담론은 다양한 변별적 요소와 강한 논쟁적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담론은 개별 국가의 이념적 지향에 의해 담론의 방향이 점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담론은 논의의 방향에 동의하는 연구자만의 이념적 전유물로 자리 잡게 되어 담론의 결과가 공인되지 못했고, 담론 자체도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담론의 가치와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 지역을 인식의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인 스스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담는다는 점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글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관해 언급된 그간의 논의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논의들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실에 기반한 진전된 논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이다. 이 글이 동아시아와 동아

시아 담론 그리고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 동아시아 문화와 유교·한자·한문(한문학)

동아시아 문화 담론은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고유한 가치·문화·사상 등 동아시아적인 것을 재발굴해 하나의 동아시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담론으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삶의 양식인 문화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아시아 지역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그 특성은 서구의 문화와 다른 독자적인 것이고, 따라서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 주장의 기반을 둔다.⁶⁾

이와 같은 주장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압력이 거세지던 19세기부터 동아시아에서 있어 온 논의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의 물질문화와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를 대비시켜 동아시아의 정신에 서구의 옷을 입히고자 했던 조선의 동도서기(東道西器)·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들은 동아시아의 정신과 서구의 기술을 결합하지는 주장으로, 서구의 물질문명은 수용하지만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는 지키고자 하는 당대 동아시아인의 의식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본질은 당시 밀려드는 서구의 압력으로 인해 수세적·수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동아시아 문화 담론은 동아시아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 찾기였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지나

6) 윤여일,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4쪽.

친 자기 정체성의 강조로 인해 아시아문화 근본주의 또는 본질주의라는 교조주의로 흘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적·정신적 전통을 재발견하여 그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동아시아를 설명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문화 담론의 중심에 놓인 문화 요소는 대체로 유교·한자·한문(한문학) 세 요소였고⁷⁾, 이 요소들은 모두 일정한 관계망의 틀 속에 묶여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동아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지향을 보여주는 유교의 전파와 확산이 한자를 이용한 한문 기록(한문학)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유교가 동아시아 어느 한 지역의 정신문화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와 지향이 되기 위해서는 한자를 이용한 한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문 기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함께 표기의 수단인 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는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은 일정한 관계망의 틀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을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이 세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이 세 요소를 통해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문화가 동질성만큼이나 큰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를 두고 볼 때, 유교를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신문화의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동아시아의 모든 정신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를 해명하는 것은 다른 많은 정신문화를 유교 하나로 획일화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동아시아의

7)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세 편의 글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우성, 「동아시아와 한국」,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3쪽; 허철, 「漢字文化圈의 變化와 漢字·漢文教育의 새로운 방향 모색」, 『漢字漢文教育』 2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78~79쪽;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古典學)과 한문교육 -그 시각과 방법-」, 『한문교육논집』 42,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38~39쪽.

정신문화는 지역마다 상황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어떤 문화 요소도 주변의 다른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정립되어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한문(한문학)의 경우도 유교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자와 한문(한문학)이 공동의 문자와 문학으로 기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와 함께 그 지역의 독자적인 문자가 사용되었다. 특히 언어의 경우 단 한 번도 동아시아의 공동 언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한문(한문학) 역시 동아시아의 공동 기록 양식 혹은 문학 양식으로 인정되지만,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언제나 그 지역의 고유한 문학 양식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경쟁에서 전근대 시기 한자와 한문(한문학)은 대체로 우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대로 올수록 점점 더 개별 지역의 고유한 문자와 문학에 주도권을 내어주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문화 담론은 문화결정론 또는 문화본질론으로 변질되어, 동아시아의 문화가 고정적이면서 전일적인 실체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 경합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내적으로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부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 강조는 다양한 변용 가능성을 갖는 문화를 화석화하고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사장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⁸⁾

이와 같은 비판은 동아시아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근대 시기에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 공동 문화로 기능했다는 것 역시

8) 박민철,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통일인문학』 6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45~146쪽.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충돌하는 두 관점의 극명한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는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과 중국 또는 중국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이된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는 기본 요소로 언급되는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모두 중국을 발생의 근거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을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는 기본 요소로 규정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근원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유교의 경우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신문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다른 모든 정신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한자와 한문(한문학)의 경우 동아시아의 공동 문자와 문학으로 기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자와 한문(한문학)이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는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자·고유한 문학 양식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을 중국이나 중국 문화와 이어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 혹은 문화적 동질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런 만큼 동아시아 문화와 중국 또는 중국 문화와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는 중국의 앞선 문화를 공유하며 발전하였다. 이 문화를 앞선 혹은 선진화된 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당대 중국의 문화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체계화되고 정제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이 시기 중국은 강력한 힘과 화이

사상(華夷思想)을 근거로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변 지역에 차등을 두었고,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 질서에 참여하거나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는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중국에서 수용된 문화에 의해 일정한 변용이 불가피했고 중국에서 수용된 문화 역시 고유한 문화와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 애초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닐지라도 동아시아 지역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로 확장되었고 그렇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 문화의 위상은 근대로 오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19세기 무렵이 되면서 그때까지 중국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동아시아의 한쪽 끝에 있던 일본이 동아시아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부터 동아시아에서 중국 문화의 의미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서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일본은 밀려오는 서구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적응한 일본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이 시기 일본은 서구화된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했는데, 자신들의 동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동아시아 문화의 대표로 위치하고자 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만주 등의 동아시아 국가를 식민지화하여 일본에 귀속시키고 이를 大東亞라는 개념으로 묶은 뒤 이전까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에 놓였던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와 같은 노력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전후의 경제적 빈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에 의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스스로를 동아

시아의 대표,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 혹은 문화적 동질성의 이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강조하고 중국 문화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 근대사의 부침이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설명한다고 인정받던 요소들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 외적인 압력에 의해 그간 지녀온 위상을 부정당했고, 이후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란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획일화된 문화결정론이나 문화본질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이라는 것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실체 없는 것인가.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은 다원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이 글에서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를 주도하며 자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우려 했던 일본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전근대 시대에는 일본 역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중국과 일정한 영향 관계 속에서 자국의 문화를 유지·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지니는 것이었다.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했던 것은 자신들의 풍속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와 같은 의식을 지녔지만, 상대적으

로 일본의 분리 의식이 가장 강력했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장 유리했다. 일본의 분리 의식은 일본과 중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13세기 일본이 몽고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 가지게 된 신국(神國) 의식이나 천황(天皇)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체제 등과 같은 일본의 역사적 상황과 체제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근대 시기 일본은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의 서구는 일본에게 또 다른 중국일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서구에 호응하면서 중국의 압력을 벗어나 스스로를 동아시아의 중심에 두려 하였다.⁹⁾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일본은 중국의 문화를 부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은 주체적인 것으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간주하고자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문화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역시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세계질서 속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9세기 이후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문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전통문화로만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유교·한자·한문(한문학)으로 대표되는 중국에서 영향받은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동아시아의 지형적·역사적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을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 공동 문화로 인정할 수

9) 양니엔첸, 「동아시아 근대 지성의 동아시아 인식 ;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 근대 이후 한, 중, 일의 아시아상상의 차이와 그 결과」, 『大東文化研究』 5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00~106쪽.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본질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라거나 동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적·역사적·종족적 다양성은 동아시아 문화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화로 만들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문화는 내적 다양성과 가변성을 지닌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편 문화, 공동 문화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화가 동아시아의 문화 전체를 대표한다거나 하나의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도 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를 비롯하여 인류가 문화를 형성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특정한 몇 가지 문화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문화를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념과 이상, 상상과 허구의 대상으로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문화를 몇 가지 특정한 요소나 특정한 한 국가의 문화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 공동 문화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관념과 이상에 근거하여 동아시아를 보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관념과 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문화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자리찾기

동아시아 문화의 중층성과 복합성, 내적 다양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동아

시아 문화를 특정한 몇 가지 요소로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보편 문화 또는 공동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보편 문화나 공동 문화는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세 요소가 중국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부단한 변개와 변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유교·한자·한문(한문학)은 중국의 그것과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르면서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화 요소 중 한문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한국 한문학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한문학이란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하여 기록되고 창작된 문학을 말한다. 그런데 한자가 중국을 발생지로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공용문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문학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창작되고 기록된 일체의 시문(詩文)을 말한다. 하지만 한문학이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한다고 해서 단순히 한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한문학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를 갖기 이전에 한자를 수용하여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자국어와 한자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와 함께 각자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한자를 대체할 자국의 문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한자는 최초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자에서 공용문자로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 또는 공동 문자가 될 수는 있지만,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자나 동아시아의 문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한자의 역사적 변천은 한자로 표기된 모든 것을 한문학의 영역에 포함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노래의 경우 한자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각각의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고유한 노래들이 그 노래가 가진 속성에

의해 한문학의 보편적인 형식과 달리 기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의 향가나 경기체가와 같이 동아시아의 노래 문학 중에서는 한자를 단순히 표기 수단으로만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노래들은 한자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한문학의 보편적인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 기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문학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 형식이 어떠한 한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한문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한문학의 보편적인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개별 지역의 한문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¹⁰⁾ 하지만 이럴 경우 한문학은 형식적 공통성 즉 외적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위 양식의 범주가 지나치게 많아 범주를 규정할 수 없는 문학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문학은 범주를 한정할 수 없는 무범주·무형식의 문학이 되어 형식의 해체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문학은 그 발생지인 중국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문학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한자를 이용하여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고 창작된 문학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문학은 본질적으로 발생지인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학으로, 언제나 타자(他者)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학이다. 발생지인 중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도 한문학은 우리가 아닌 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문학은 언제나 타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한문학과 또 개별 지역의 고유한 문학과 대립·경쟁·조화하며 창작되고 향유될 수밖에 없다.

한문학의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한문학의 위상은 위태

10) 이 글에서 이야기한 개별 지역의 한문학은 심경호가 「조선후기 변격시문에 관한 일고찰」(『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2017.)에서 언급한 변격시문과는 다른 것이다. 변격시문의 경우 각 지역의 독자적인 언어관습이 적용된 한문 표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문학의 일반적인 서술 양식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래와 같은 개별 지역의 한문 기록의 경우 기본 구조에서부터 한문학의 전통적인 서술 양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많다.

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였다. 한자가 수용되면서 함께 전래된 한문학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체계화된 유일한 문자 문학이었고, 그런 만큼 한문학은 당대 동아시아 각지에서 상층계급이 향유하는 귀족문학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문학은 공용 문학이었기 때문에 개별 지역이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학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한문학을 중국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문학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에서 창작되고 기록된 한문학은 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¹¹⁾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한문학은 타자의 문학이면서도 자아의 주체적 문학을 넘어서는 위상을 가진, 그러면서도 결코 완전한 자아의 문학이 될 수 없는, 자아와 타자의 영역이 교차하는 문학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한문학의 특성은 동아시아 한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타자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를 인식의 틀로 삼아 자아와 타자를 상대화하는 연구 방법¹²⁾이나 한문학을 하나의 큰 집합체로 보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한문학을 중심과 주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로 접근하는 복수(複數) 한문학 논의¹³⁾는 상

11) 진재교, 「한국한문학 연구와 동아시아」, 『학문장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16쪽 각주 3번.

12) 이에 대해서는 임형택의 다음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임형택,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간의 지식교류의 양상-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문명의식과 실학』, 돌베개, 2009.

13) 여기에 대해서는 진재교의 다음 글에 자세하다. 진재교,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중심과 주변의 변증법, 그리고 한문학」, 『人文研究』 5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동아시아와 조선조 후기 한문학 연구 방법론」, 『古典文學研究』 43, 한국고전학회, 2013; 「17~19세기 사행(使行)과 지식, 정보의 유통 방식-복수(複數)의 한문학, 하나인 동아시아」, 『한문교육논집』 40, 한국한문교육학

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아시아 한문학에 대한 접근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보인다.

한국 한문학을 예로 들어 살펴볼 때 전근대 시기 한국 한문학의 처지는 앞서 언급한 상황과 같았다. 중국에서 전래된 문학 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최초의 문자 문학으로 상층 귀족계급에서 향유하던 문학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유 문자가 발명되고 그 문자를 통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한문학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학 외적 압력에 의해 한문학의 창작이 위축되기 전까지 한국 한문학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창작된 문학 양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상을 지닌 한국 한문학이었지만, 한국 한문학은 수용되면서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 내·외부의 다양한 비판을 감당해야 했다. 주체적인·자생적인 전통 문학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용된 이질적인 문학이었고, 한국의 언어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학이었으며, 상층 귀족계급에 의해 생산되고 향유된 문학이었다는 한국 한문학의 속성은 내부의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또 이와 같은 내부 비판에 대한 반응과 함께 한국 한문학 창작 계층의 자기반성과 각성에 의해 한국화된, 자아화된 한국 한문학은 중국의 전형적인 한문학과 다르다는 비판을 감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문학은 근대로 오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위상을 상실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 한문학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한국 문학과 다르지만 같은,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문학의 보편적인 양상과 같지만 다른 모습이 동시에 조망될 때 한국 한문학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한문학을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한국 한문학에 대한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 2013; 「동아시아 고전학(古典學)과 한문교육-그 시각과 방법」, 『한문교육논집』 42,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동아시아를 인식의 틀로 삼아 자아와 타자를 상대화하는 연구 방법이나 한문학을 하나의 큰 집합체로 보고 동아시아의 한문학을 중심과 주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로 접근하는 복수 한문학 논의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구체화 되고 성과가 쌓일수록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실상과 위상이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인 담론이 제시되면서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아시아 한문학이나 한국 한문학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은 이와 같은 담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한문학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단위나 틀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중 동아시아 한문학을 중화주의(中華主義)나 화이사상(華夷思想)을 바탕으로 한문학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중국이나 근대화와 서구 지향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 연구자들의 시각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이 두 관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균형 잡힌 관점에서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문학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상호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중화(中華) 지향과 탈중화(脫中華) 지향의 이분법적 구도 중 어느 하나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할수록 중화를 지향하고, 혁신과 근대, 주체성을 강조할수록 탈중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관습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한문학을 논의할 때는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을, 한국과 일본 혹은 기타 동아시아 지역의 한문학을 논의할 때는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바라보는 한국 연구자들의 시선은 한국을 중심에 두고 동아시아 다른 국가의 한문학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밖에 없고, 한국 한문학은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문학이 된다.

한국 한문학 연구자들은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한국 한문학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을 정립하려 한다. 이들은 한국 한문학이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한문학과는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을,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의 한문학과는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 한문학은 동아시아 한문학의 전파와 흐름 또 교류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가치와 의미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동아시아 한문학의 상호 소통과 교류의 양상을 통해 한국 한문학의 위상을 밝히기 위해 연행사(燕行使)와 통신사(通信使)를 통한 직접 교류나 표류(漂流) 등을 통한 체험, 직접 교류나 체험을 계기로 이어진 서신 교류 그리고 교류를 통해 형성한 우의(友誼)나 정의(情誼)에 주목한다.

한국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이 분명하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한문학이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학이라는 주장은 당대 한국 한문학이 처한 상황과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과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이 지닌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의 상호 소통과 교류의 양상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과 노력들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주체성을 강조한

다는 주장이 당대 한국 한문학이 처한 상황과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 지향성과 주체성의 강조가 지니는 각각의 의미와 전체적인 의미를 밝혀 상호 모순성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주장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문제는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과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이라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한문학이 동일한 형식 안에 각각의 지역이 지닌 독특함을 담는 것이라면 동아시아 모든 지역의 한문학은 모두 동질성과 이질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한문학이 가진 중국 한문학과 동질성과 다른 지역 한문학과 이질성을 다른 지역의 한문학 역시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본 한문학 역시 중국 한문학과 동질성에 기반한 이질성을, 한국 한문학과 이질성에 기반한 동질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한국 한문학의 성격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한문학의 보편적인 성격이 된다. 따라서 이 주장을 한국 한문학의 독특한 성격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한국 한문학이 지니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한문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주장은 선협적인 것으로 중화주의에 기댄 것이거나 한국 한문학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한문학의 앞에 두고자 하는 의도된 주장이 될 것이다.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한 직접 교류나 표류 등을 통한 체험, 직접 교류나 체험을 계기로 이어진 서신 교류 그리고 교류를 통해 형성한 우의나 정의에 주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교류와 상호 소통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이런 교류와 소통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과 가치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약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접촉에 대한 관심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교류와 소통의 주체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교류와 소통이 서로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 교류와 소통이 그 시기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소통했지만, 그 교류와 소통이 그 당시 또는 이후 한국 한문학의 어떤 변화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접촉을 진정한 의미의 교류와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전근대 시기 한국 한문학의 작가 한 사람이 이런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국(異國)의 실상을 확인하고 지적인 자극을 받았으며 깊은 우의와 정의를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교류와 소통이 그 시기 사회의 또 문단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었을 수 있고, 새로운 자극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또 실제로 몇몇 인물의 경우는 이와 같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근대 시기 한국의 문단 전체에서 이런 교류와 소통이 실질적인 결과와 이어지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근대 시기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상호 교류와 소통의 주역이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 교류와 소통의 결과가 대체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귀결되고 말았을 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교류와 소통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류와 소통에 주목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류하고 소통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자극받고 각성했으며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고 우의와 정의를 나누었다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교류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당대 한국 문단과 사회에 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의는 하나의 사건 혹은 현상의 나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한국 한문학을 바라보는 논의가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지만,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든 규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담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시적인 접근의 경우 아직까지 사건의 제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담론의 경우 구체적인 접근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논란이 정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동아시아 문화 담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논의가 아직 충분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개념에서부터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의 관계에 관한 논의까지 어느 것 하나 선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관해 언급한 한국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한문학 논의를 주도하여 한국 한문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한문학을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비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중국에 대한 막연한 지향과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의 한문학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담고 있거나 전근대 시기와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한문학을 구분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 한문학에서 한국 한문학의 보편성과 주체성을 동시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적인 모습은 한국 한문학 연구자들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전근대 시기 중국과 중국 문화가 주도하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한문학에 대한 선형적 기억과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를 강점하고 스스로를 동아시아 문화의 맹주로 두고자 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 시기 한국 한문학의 성취에 대한 우월감과 현재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대한 위기감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모습들은 모두 불안한 긴장감을 바탕으로 둔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적 자부심을 내면에 감추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징적인 모습들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치에 관해 논의하는 한국 연구자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감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에 관해 언급하는 한국 연구자들의 논의는 객관화될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 동아시아 한문학 담론과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자리찾기는 관념의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왜’라는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들이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한문학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을 찾고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의 관계를 고민하는 진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한 이후라야 그 다음의 논의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한문학 또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위상 또는 동아시아 한문학과 한국 한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자리찾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성빈, 「동아시아담론: 이론화를 향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21(4),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2, 111쪽.
- 김광역,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70,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22~23쪽.
- 김시업, 마인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336쪽.
- 박민철,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통일인문학』 6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45~146쪽.
-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 편, 『학문장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1~584쪽.
- 심경호, 「조선후기 변역시문에 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화회, 2017, 5~36쪽.
- 양니엔첸, 「동아시아 근대 지성의 동아시아 인식 ;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 근대 이후 한, 중, 일의 아시아상상의 차이와 그 결과」, 『大東文化研究』 5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00~106쪽.
- 윤여일,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2~124쪽.
- 임형택,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27쪽.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간의 지식교류의 양상-‘이성적 대화’의 열람을 주목해서」,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7~23쪽.
-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 돌베개, 2009, 1~262쪽.
- 정중현, 「‘동아시아’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30년대 ‘동양’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39쪽.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 한국 한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중심과 주변의 변증법, 그리고 한문학」, 『人文研究』 5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29~264쪽.
- 진재교, 「17~19세기 사행(使行)과 지식, 정보의 유통 방식-복수(複數)의 한문학, 하나인 동아시아」, 『한문교육논집』 40,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381~419쪽.

- 진재교, 「동아시아와 조선조 후기 한문학 연구 방법론」, 『古典文學研究』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371~400쪽.
-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古典學)과 한문교육 -그 시각과 방법-」, 『한문교육논집』 42,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37~66쪽.
- 최우영,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공동체주의」, 『오늘의 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81~97쪽.
- 허철, 「漢字文化圈의 變化와 漢字·漢文教育의 새로운 방향 모색」, 『漢字漢文教育』 2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77~122쪽.

ABSTRACT

East Asian Discourse and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Yoon, Jae-hwan*

To define East Asia's cultural identity as several specific cultural factors is to recognize East Asian culture as objects of ideas, ideals, imagination, and fiction, not as entities that exist. However, it is not right to deny the existence of East Asian universal culture and common culture because of the fact that East Asian culture cannot be explained by several specific factors. It can never be right to deny even the facts that exist not to see East Asia based on ideas and ideals.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one of the cultural elements of East Asia, is a literary style that began in China and spread throughout East Asia. Therefore, in order to approach East Asi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a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is necessary. This is the same in the case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and accordingly, it is argued that East Asi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and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should be viewed from a relative perspective, but the practical approach has not yet met this discourse.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believe that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is a literature that emphasizes subjectivity while aiming for chineseization, and that it is a literature that has heterogeneity based on homogeneity with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in China and homogeneity based on heterogeneity with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in other regions, and aims to establish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chinese character in East Asia by revealing the contents of exchanges and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contacts. However, these arguments still hav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at most of the leaders of mutu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in East Asia do not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the country'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and the results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have generally resulted in a personal level.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in East Asia,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ost essential part of East Asia and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from now on.

Key Words

East Asian discourse, cultural discourse, cultural identity,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East Asi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

논문투고일: 2023.04.20.
심사완료일: 2023.04.30.
게재확정일: 2023.05.04.